

## 7세기 초 신라 정치사와 혜성가

The meaning of "Ode to a Comet"

---

저자 (Authors)	신영명 Shin Young-myoung
출처 (Source)	<a href="#">우리문학연구 24</a> , 2008.6, 25-50(26 pages) <a href="#">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24</a> , 2008.6, 25-50(2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우리문학회</a>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953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9538</a>
APA Style	신영명 (2008). 7세기 초 신라 정치사와 혜성가. 우리문학연구, 24, 25-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5 09:4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7세기 초 신라 정치사와 <혜성가>\*

신영명\*\*

##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II. 7세기 초 신라 정치사  |
| II. 원문 이해  | 1. 창작 연대와 국제정세     |
| 1. 구리와 치   | 2. 607년 전후 신라 국내정세 |
| 2. 길솔별과 혜성 | IV. 맺음말            |
| 3. 혜성 기운   |                    |

### 【국문초록】

<혜성가>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노래다. 6세기 말 7세기 초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경험한다. <혜성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왜군의 침입과 혜성의 출현이란 두 사건이 나란히 나타난다. 두 사건 모두 위기처럼 보이지만, 진평왕은 음천사를 통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꾼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하며, 국내적으로는 귀족 연합과의 타협을 통해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때, <혜성가>는 진평왕대 전제왕권의 업적을 찬양하는 악장문학이 된다.

<혜성가>의 대의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동쪽 바닷가 건달바가 놀던 성을 살피다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상지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집필되었음.

\*\* 상지대 교수

왜군도 왔다 봉화 사른 변새 있어라  
세 화랑 산 본다는 소식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빛을 발하는데  
길쓸별 바라보고 혜성이라 아뢰 사람이 있다  
아아 산 아래로 사라졌으니  
이밖에 무슨 혜성 기운이 있겠는가

주제어: 혜성가, 핼리혜성, 7세기, 신라, 전제왕권, 귀족연합, 진평왕,  
왜군, 동북아

## I. 문제 제기

<혜성가>는 혜성의 정체를 밝혀 삼화의 풍악행을 도운 노래다. 이 노래를 부르자 민심은 안정된다. <혜성가>는 그러므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노래가 된다. 여기서 삼화는 거열랑, 실처랑, 보동랑의 세 화랑을 가리키며, 이들의 유오산수를 명한 왕은 진평왕(579~632)이다. 6세기 말 7세기 초는 수당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시기다. <혜성가>는 동북아의 이러한 국제정세를 염두에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평왕 당대의 국내정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의 문제는 <혜성가> 해석의 관건이 된다.

<혜성가>의 창작 연대로는 594년, 602년, 607년, 623년의 네 가설이 있다.<sup>1)</sup> 어느 경우를 상정하든 동북아 국제정세의 자장을 벗어나기 힘들다. 돌궐, 수, 고구려가 자장의 중심축을 이루는데, 이때 왜국<sup>2)</sup>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왜국은 신라와 전면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허장성세만으로도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혜성가>는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나온 작품이다. 진평왕은 이 흐름을 타고 전제왕권의 강화를 꾀한다. 그것은 국내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드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다.

다른 향가와 마찬가지로 <혜성가> 또한 그 해독이 완전하지 않다. 여기서는 기존의 해독을 적절하게 참고해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자 한다. 특히 “舊理 東尸汀叱 乾達婆矣 遊烏隱 城”에 대한 가설을 새

- 
- 1) 각각 조동일, 강산선일랑, 서영교, 어윤적의 가설이다. 황병익, 「<혜성가>의 쟁점과 의미 고찰」, 『한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2005, 190면 참조.
  - 2) 이 글에서는 일본을 왜국으로 부른다. 그것은 일본이란 국명이 문무왕 10년(670) 이후 신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신형식, 『통일신라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4, 363면 참조.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일본으로 표기되나, <혜성가> 안에서는 왜로 표현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독을 바탕으로 <혜성가>가 가진 국내  
외적 정치사의 성격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II. 원문 이해

### 1. 구리와 치

<혜성가>의 원문을 삼단육행 방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舊理 東尸汀叱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盼良 望良古  
倭理叱軍置 來叱多 烽 燒邪隱 邊 也藪耶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 聞古 月置 八切爾 數於將來尸 波衣  
道尸掃尸星利 望良古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後句 達 阿羅 浮去伊叱等邪  
此也 友物 北所音叱 彗叱只 有叱故

제1단에서 다를 필요가 있는 어휘는 舊理와 동일보조사 置다. 舊理  
는 ‘네’로 해독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한정하는 서술  
어가 무엇이라는 점이다. 답은 遊烏隱, 望良古, 燒邪隱의 셋 가운데 하  
나가 된다. 성취가 사라지자 일본병이 돌아갔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존중할 때, 왜군와 혜성의 출현은 동시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경우 燒邪隱은 당연히 해답의 목록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燒邪隱  
은 과거가 아닌 현재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음 望良古를 과거로 읽을  
경우, 제1행과 제2행 사이에는 시제상의 모순이 일어난다. 곧 제1행은  
과거인데, 제2행은 현재가 되는 모순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遊烏隱뿐인데, 이 경우 望良古는 ‘부러워하고’  
또는 ‘앗으려고’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바라보고’라는 원래의 의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곧 遊鳥隱은 ‘네’의 한정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望良古를 ‘바라보고’로 읽으면서, ‘네’의 한정어를 遊鳥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건달바를 불국토 신라를 지키는 신장으로 보면 가능성은 열린다. 원래 건달바는 사왕천 중 동주 지천국을 지키는 신장이다. 이를 신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건달바는 환술로 신기루 성을 만들어 동쪽 해안을 지키는 신장이 된다. 이 경우 제1행은 “옛날 건달바가 신기루 성을 만들어 지키던 동해안을 살피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곧 遊鳥隱은 환술을 부려 지킨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된다.

다음 제2행의 倭理叱軍置之 동일보조사 置之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1행의 건달바가 논 곳을 왜군도 왔다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제3행의 삼화가 올 곳을 왜군도 왔다는 뜻이다. 건달바가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왜군이 신라를 지키러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달바가 지키던 곳을 왜군이 침범하러 온 것으로 볼 경우, 굳이 置之를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의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랑이 집단으로, 그것도 세 집단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사안이다. 화랑한 집단의 수가 약 1000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풍악행은 3000명 정도의 대규모 군중 집회라는 성격을 띤다. 더구나 왜군 침입의 소문이 흉흉하다면 긴장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만약 삼화 집단이 유오산수라는 목적을 내걸고 실제로는 비밀리에 왜군을 막으러 오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경우, 변새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드디어 전쟁을 하러 왜군도 오는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법도 하다. 이것이 바로 동일보조사 置之 담긴 의미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혜성가> 해독의 합리적 대안을 내놓도록 하자. 해독의 기본은 양주동을 따르되, 몇몇 부분은 양희철, 소창진평, 강길운, 유창균의 것을 취한다.

네 슬몹즈 건달바의 노른 잣홀란 브라고  
 옛군두 옷다 봉 술안 쫓 이슈라  
 삼화이 오롬 보솔 듣고 둘두 브즈리 허럴 결의  
 길쓸별 브라고 혜성여 술본여 사르미 있다  
 아으 달 아래 떠갓더라  
 이의 빛간 므습 헛기 이실꼬<sup>3)</sup>

이를 현대역으로 고쳐 표기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옛날 동쪽 바닷가 건달바가 놀던 성을 살피다  
 왜군도 왔다 봉화 사른 변새 있어라  
 세 화랑 산 본다는 소식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빛을 발하는데  
 길쓸별 바라보고 혜성이라 아뢰인 사람이 있다  
 아아 산 아래로 사라졌으니  
 이밖에 무슨 혜성 기운이 있겠는가

## 2. 길쓸별과 혜성

제2단에서 문제가 되는 어휘는 道尸掃尸星利과 彗星이다. 주지하다 시피 彗는 '비'와 '살별'이란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전자는 길조, 후자는 흉조의 속성을 갖는다. 용천사는 혜성을 살별로 보지 않고 길쓸별로 본

3) 東尸는 양주동은 '시시'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양희철의 해독에 의거해 '솔'로 읽는다. 양주동과는 달리 소창진평은 '燧'를 '烽'으로 읽는다. '보솔'은 강길운의 해독으로, 양주동은 '보샤솔'로 읽는다. '결의'은 유창균의 해독으로 양주동은 '바애'로 읽는다. '달'은 양주동의 해독과는 달리 '산'의 의미를 갖는데, 이 견해는 강길운 등이 취한다. '이의 빛간'은 강길운의 해독으로, 양주동은 '이 어우'로 읽는다. '헛기'의 '기'는 양주동은 주격조사로 보고 있는 반면, 강길운은 기운의 뜻으로 읽는다. 여기서는 기운의 뜻으로 사용한다. 양주동, 『증정 고가 연구』, 일조각, 1965, 561면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학사, 1997, 387면 ; 소창진평, 『鄉歌及び吏讀の研究』, 경성제국대학 국문학회, 1929, 217면 ; 유창균, 『향가 비해』, 형설출판사, 1996, 735면 ; 강길운, 『향가 신해독 연구』, 한국문화사, 2004, 52~53면 참조.

다. 그렇다면 혜성을 살별로 인식한 사람은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정세에 밝은 세력 대 어두운 세력이란 구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친진평왕 대 반진평왕의 구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신라, 고구려, 왜국 등의 동북아 국가로 이어지는 국제정세를 이해한다면, 직접적 공세보다는 외교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 왜국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혜성과 같은 이상 징후로 인해 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 이것이 곧 혜성을 살별로 인식한 이유가 된다.

다음 친진평왕 대 반진평왕의 구도에서 볼 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것은 국제정세를 국내정치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왜국이 쉽게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평왕의 대왜국 정책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살별설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반진평왕 세력의 입장에서는 전쟁 소문이 흉흉한 지금 풍악으로 삼화를 보내는 일은 상황의 시급함을 모르는 조치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가설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진평왕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화가 오히려 복으로 변하여 대왕이 기뻐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고려할 때, 전자보다 후자의 이유가 문맥에 더 어울릴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 관계의 해결을 통해 국내 문제의 고리마저 푸는 것이 진평왕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기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검증 자료의 미비로 인해 추정 이상의 작업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논리의 비약을 막기 위해 용천사를 혜성 출현 문제를 해결한 국제정세 분석통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혜성가>는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진 작품으로 보인다.

<혜성가>는 진평왕대의 국제정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다만 이것이 국내정치 문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느낌이다. 여기서는 국제정세의 문제를 우선해 <혜성가>를

다루되, 국내정치 문제도 해석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한다.<sup>4)</sup>

### 3. 혜성 기운

제3단에서 다루어야 할 어휘는 彗叱只다. 양주동은 그것을 ‘彗시기’로 해독하고 只를 주격조사 ‘기’로 읽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혜성 기운’으로 읽고자 한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있다. 그리고 혜성은 산 아래로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그 혜성은 흉조를 가진 살벌이 아니라 달의 앞길을 밝혀주는 길쓸별이다. 그러므로 혜성이 길을 쓰는 비의 기능 말고 그밖에 다른 어떤 기능을 갖겠느냐는 것이 제6행의 의미가 된다. 이때 제3행의 달은 천인상관의 논리에 따르면, 왕이나 국가의 상징이 된다. 곧 밤하늘에 달도 밝게 떠있고 혜성도 그 앞길을 쓸고 있으니, 흉흉한 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3단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는 국가의 안녕과 민심의 안정을 위해 주어진 국정과제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진평왕에 대한 융천사의 찬양적 평가가 담겨 있다. 곧 융천사는 진평왕이 상황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악장이 왕업에 대한 찬양을 목표로 하는 갈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혜성가〉는 악장적 성격을 가진 문학이 된다.

---

4) 이기백은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글의 논지전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전략... 이러한 모든 대일 외교는 국내의 대립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일본과의 단순한 1대 1의 관계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기백, 『고대 한일 관계의 검토』, 『한국고대사론』, 일조각, 1995, 181면 참조.

### Ⅲ. 7세기 초 신라 정치사

#### 1. 창작 연대와 국제정세

<혜성가>의 정치사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창작 연대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창작 연대를 밝혀야 당대 정치 상황을 정교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성가> 창작 연대는 혜성 출현과 왜군 환국의 두 연도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밝힐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시기 혜성 출현과 왜군 침입 기록은 다음과 같다.

혜성 출현	일본 침입	창작 연대
백제 위덕왕 26년(579)		
진 선제 태건 13년(581)		
수 고조 개황 8년(588)		
	송준 4년(591)	
수 고조 개황 14년(594)		594
	추고 8년(600)	
	추고 10년(602)	602
	추고 11년(603)	
수양제 대업 3년(607·1·2·5)		607
수양제 대업 4년(608)		
수양제 대업 11년(615)		
수양제 대업 13년(617·6·9)		
	추고 31년(623)	623
당 고조 무덕 9년(626)		

위의 도표에서 보듯 혜성 출현과 왜군 침입 연도가 겹치는 해는 없다. 그리고 5번 침입 모두 1년 이상 끈 경우도 없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창작 연대를 찾을 수는 없다. 더구나 심대성이 한여름 밤에 보이는 별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혜성의 출현 계절 또한 여름이 되어야 한다.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는 사실상 찾기 어

렵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기록의 불비에 서 해결책을 찾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설화적 압축에서 그것을 찾는 길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존중한다면, 혜성 출현이나 왜군 침입의 두 경우 중 어느 한쪽 기록의 불비가 문제된다. 만약 왜군 침입이 대규모 공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대응 자세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일본서기』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삼국유사』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쪽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신, 왜군 침입의 성격을 출몰 정도로 축소하는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속한다.

그렇다면 <혜성가>의 창작 연대는 언제인가? 여기서 주목할 해는 혜성이 동쪽 하늘에 나타난 594년과 607년이다. 이제 그 관련 기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②는 594년의 기록이며, ㉓, ㉔, ㉕는 607년의 기록이다.<sup>5)</sup>

- ① 백제 위덕왕 41년 11월 계미일 패성이 각항에 나타난다.  
四十一年 冬十一月 癸未 星孛于角亢
- ② 수 고조 14년 11월 계미일 패성이 각항에 나타난다.  
十四年 十一月 癸未 有星孛於角亢
- ㉓ 삼년 봄 정월 병자일에 장성이 하늘 끝 동쪽 벽에서 나와 이십일 동안 머물다 사라지다.  
三年 春正月 丙子 長星竟天 出於東壁 二旬而止
- ㉔ 이월 기축일 혜성이 규에 나타나 문창을 쓸고 대릉, 오차, 북하를 지나 태미로 들어가 제과를 쓸다. 전후 백여일만에

5) ① 『隋書』 2: 『二十五史』 5, 상해고적출판사·상해서점, 1986, 8면; ② 김부식, 『삼국사기』, 한길사, 2003, 256면. ㉓; ㉔; ㉕ 『수서』 3: 『二十五史』 5, 11면.

사라지다.

二月 己丑 彗星見於奎 掃文昌 歷大陵五車北河 入太微 掃  
帝坐 前後百餘日而止

- ㉔ 오월 계유일에 패성이 문창과 상장에 나타나자, 별들이 모두 흔들리다.

五月 癸酉 有星孛於文昌上將 星皆動搖

①과 ②는 『삼국사기』와 『수서』에 나타난 594년 동일 혜성에 대한 기록이다. 이십팔수 중 각과 항은 동쪽 하늘에 속한 별자리다. 한편 ㉔와 ㉕와 ㉖는 607년에 나타난 헬리혜성에 대한 기록이다.<sup>6)</sup> 규, 문창, 대릉, 오차, 북하, 태미, 제좌 등은 서쪽 또는 서북쪽 방향의 별자리다. 이 경우 헬리혜성은 처음 동쪽에 나타나, 지구, 태양, 혜성 사이의 상대적 위치로 인해 잠시 시야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헬리혜성은 다시 서쪽에서 나타나 백 여일 만에 서북쪽으로 사라진다. ①과 ②, 또는 ㉔와 ㉕와 ㉖ 그 어느 것이든 여름 동쪽 하늘에 나타난 혜성은 아니다. 다만 607년 여름 서쪽 하늘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㉕와 ㉖의 경우는 주목을 요한다.

607년 헬리혜성은 봄 동쪽 하늘에서 나타나 서쪽을 거쳐 여름 서북쪽으로 사라진다. 혜성이 심대성을 범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아마도 설화적 압축 과정에서 나온 착종일 가능성이 있다. <혜성가> 배경설화의 핵심은 천체 이변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의 해소에 있다. 그 불안은 소용돌이치는 국내외적 정치 상황 속에서 나온다. 천체 이변은 왕권 유고와 연결되고, 그것은 다시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이 상황의 강조를 위해 심대성의 등장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다. 그리하여 봄 동쪽 하늘에서 나타나 여름 서북쪽 하늘로 사라진 혜성을 여름 동쪽 하늘 심대성을

6) 서영교, 「용천사의 <혜성가> 창작 시기와 그 배경」, 『민족문화』 27, 민족문화추진회, 2004, 145~147면에 따르면 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5월이 헬리혜성의 소멸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 기사 역시 헬리혜성의 기록으로 보인다. 이하 헬리혜성에 대한 정보는 모두 위 논문에 의거해 서술한다.

범한 살별로 압축해 표현한다. 이 착종은 설화적 시각에 의한 시공의 압축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혜성가> 창작 연대는 594년이 아니라 607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자. 594년과 607년 중 왜군 출몰 정도의 소규모 군사작전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연도는 어느 쪽인가? 이 두 시기 전후 왜군이 신라 침공을 시도한 연도는 591년, 600년, 602년, 603년이다. 이 기간은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공한 598년 전후에 해당한다. 이때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해 왜국과 동맹을 맺는다. 그것은 배후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신라는 수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한다. 왜군의 신라 침입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나온 것이다.

아래 자료 중 신라와 수나라의 동맹을 보여주는 사료는 ①이며, 고구려와 왜국의 동맹을 보여주는 사료는 ②, ④이다. ③, ⑤, ⑦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알려주는 사료다. 다음 ⑥은 왜국과 수나라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다.

- ① 594년: 수문제가 진평왕을 상개부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봉했다.  
十六年 隋帝詔拜王爲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 ② 595년: 추고 3년 5월 10일 고구려 승려 혜자가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三年 五月 戊午朔 丁卯 高麗僧慧慈歸化 則皇太子師之
- ③ 598년: 영양왕 9년 왕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공격했다. 수문제가 수륙군 30만으로 하여금 정벌케 했다.  
九年 王率靺鞨之衆萬餘 侵遼西 中略 將水陸三十萬來伐
- ④ 600년: 추고 8년 2월 신라와 임나가 서로 공격하자 천황이

임나를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八年 春二月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

- ⑤ 607년: 영양왕 18년 수양제가 계민가한의 아장으로 거동할 때 우리 사자가 마침 그곳에 있었다. 계민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만났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뜻을 가졌다.

十八年 初煬帝之幸啓民帳也 我使者在啓民所 啓民不敢隱與之見帝 中略 帝將討之

- ⑥ 607년: 추고 15년 7월 3일 대례 소야매자를 수나라에 보냈다.  
十五年 秋七月 戊申朔 庚戌 大禮小野臣妹子 遣於大唐

- ⑦ 611년: 영양왕 22년 봄 수양제가 고구려 토벌을 알렸다. 4월 어가가 탁군 임삭궁에 도착하자 사방의 군사들이 모두 탁군으로 모였다.

二十二年 春 隋煬帝下詔討高句麗 四月 車駕至瑑郡之臨朔宮 四方兵皆集瑑郡<sup>7)</sup>

여기서 594년은 수문제가 진평왕에게 관작을 보내온 해며, 607년은 돌궐을 두고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해다. 그러면 왜국이 신라의 외교 방침을 탐색하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있던 해는 어느 쪽일까? 594년이나 607년 모두 가능성이 있다.

수문제가 594년 진평왕에게 관작을 보낼 때, 595년 고구려는 혜자를 왜국으로 보내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만든다. 593년 섭정을 시작한 성덕태자의 입장에서 볼 때, 594년은 정탐선을 띄워 신라의 외교적 대응을 탐색할만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에 대한 왜국의 도발은 역시 고구려와의 동맹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7) ① 김부식, 『삼국사기』, 69면 ; ② 板本太郎 의 교주, 『일본서기』 4, 암파서점, 2006, 456면 ; ③ 김부식, 『삼국사기』, 201면 ; ④ 판본태랑 의 교주, 『일본서기』 4, 456면 ; ⑤ 김부식, 『삼국사기』, 201면 ; ⑥ 판본태랑 의 교주, 『일본서기』 4, 462면 ; ⑦ 김부식, 『삼국사기』, 202면.

의미에서 볼 때, 신라에 대한 왜국의 도발은 해자가 도일한 595년 이후 쯤 이루어질 법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594년은 그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07년은 598년 고구려가 수문제 30만군을 물리친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기회를 틈타 왜국은 600년, 602년, 603년 세 차례 신라 침공을 시도한다. 물론 실제 침공이 이루어진 경우는 600년 한번뿐이다. 동시에 이 해 왜국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외교전을 펼친다.<sup>8)</sup> 일종의 양면책인 셈이다. 한편 고구려는 607년 수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 돌궐에 사신을 파견한다. 수양제 역시 돌궐을 순행하다 고구려 사신과 조우한다. 이에 위기를 느낀 수양제는 고구려 영양왕의 입조를 요구한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계획은 이때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 611년 수양제는 고구려 침공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전쟁에 돌입한다. 물론 전쟁은 612년 고구려의 살수대첩으로 끝난다.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이 치열한 외교전은 왜국이 정탐선을 띄워 신라에 도발을 감행하도록 만드는 여건으로 작용한다. 607년 헬리혜성은 정월에서 5월까지 출현한다. 왜국은 이 해 7월 수나라에 다시 사신을 보낸다. 수나라와의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고구려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탐선 파견은 겉으로는 고구려에게 보내는 왜국의 선물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구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외교적 전술이 된다. 또한 그것은 신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외교적 전술이 되기도 한다. 고구려와 삼한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왜국은 자신의 배후를 위협하는 존재다. 가능하다면 신라는 왜국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도는 성공을 거둔다.

8) 開皇二十年 倭王姓阿每字多利思北孤號阿輩雞彌 遣使詣闕(『수서』 2: 『이십오사』 5, 219면). 개황 20년은 추고 8년(600)에 해당하는데, 『일본서기』에는 수나라와의 수교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608년 고구려는 2월과 4월 신라를 직접 공격한다.<sup>9)</sup> 이것은 왜국을 통해 신라를 견제하려던 고구려의 외교 정책에 적신히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왜국이 고구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자 직접 신라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신라 또한 원광으로 하여금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짓게 함으로써 이에 대해 대비한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608년 고구려 침공에 따른 두 차례의 피해는 입지만, 신라의 외교 정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국과의 관계 개선책은 신라인의 도래로 나타난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08년 많은 신라인들이 왜국으로 건너간다.<sup>11)</sup> 아마도 이것은 607년 왜국의 도발에 대한 신라의 양보적 반응으로 보인다. 곧 신라가 선린 외교책의 일환으로 문물 전수를 위한 인재를 왜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혜자의 파견 이후 610년 다시 고구려가 담징과 범정을 왜국으로 보낸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sup>12)</sup>

신라, 고구려, 수, 왜국, 돌궐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정세의 관점에서 살필 때, <해성가>의 창작 연대는 594년보다 607년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논거의 상당 부분이 추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594년보다 607년의 가능성

9) 眞平王 三十年 二月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四月 高句麗拔牛鳴山城 (김부식, 『삼국사기』, 70면).

10) 眞平王 三十年 王患高句麗屢侵封場 欲請隋兵以征高句麗 命圓光修乞師表 (김부식, 『삼국사기』, 70면).

11) 推古天皇 十六年 九月 是歲 新羅人多化來 (판본태랑 외 교주, 『일본서기』 4, 464면). 그런데 이정숙은 「신라 진평왕대의 왕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89~90면에서 이를 고구려와의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난민으로 본다. 이것은 신라의 대왜국 외교 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논의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 사건의 의미 파악은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선린외교책이란 추론을 내놓기는 조심스런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학계의 연구가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해성가>와의 관련을 중시해 신라인의 도래를 선린외교를 위한 문물 전수의 일환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12) 推古天皇 十八年 春三月 高麗王上僧曇徵法定 曇徵知五經 且能作彩色及紙墨 并造礪磬 蓋造礪磬 始於是時歟 (판본태랑 외 교주, 『일본서기』 4, 464면).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창작연대설을 바탕으로 <혜성가>가 가진 국내정세와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기로 하자.

## 2. 607년 전후 신라 국내정세

607년 전후 신라의 국내정세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시기 신라사회가 아무런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중대 사회는 전제왕권 대 귀족연합의 구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전시기 중고기 사회의 이해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구도로 판단된다. 진평왕 9년 내물왕 7세손 이자 이찬 동대의 아들인 대세가 구칠과 함께 해외로 망명한 것이나, 53년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이 모반을 일으킨 것은 그러한 갈등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된다.<sup>13)</sup> 607년 신라사회 또한 배면에 이러한 갈등이 잠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표출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607년 전후 신라사회의 내부 정세를 간접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외교 관계의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신라중대 외교 정책을 살핀 연구는 전제왕권이 당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귀족연합은 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sup>14)</sup> 그것은 전제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당과의 외교가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귀족연합은 왜국과의 교섭을 통해 전제왕권에 의해 장악된 외교 주도권을 일정 정도나마 찾고자 한다.<sup>15)</sup>

13) 眞平王 九年 秋七月 大世九柒 二人適海 大世 奈勿王七世孫 伊滄冬臺之子也 ; 五十三年 夏五月 伊滄柒宿與阿滄石品謀叛(김부식, 『삼국사기』, 68·71면).

14) 이기백,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7, 234~235면 참조.

이러한 외교 정책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구조면에서는 아마도 중고기에도 동일했을 가능성이 높다. 608년 신라인의 도래는 신라의 국내정치와 일정한 연관을 가진다. 왜국과의 외교는 귀족연합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신라의 입장에서 왜국 문제는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진평왕은 국가 안정과 왕권 강화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귀족연합과 일정한 타협을 모색한다. 곧 귀족연합으로 하여금 대왜국 외교를 성사시키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은 귀족연합과의 타협을 통해 외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안정을 꾀하되, 동시에 전제왕권의 강화 역시 놓치지 않으려는 진평왕의 전략에서 나온 산물이다.

진평왕의 이러한 통치 및 외교 전략은 『삼국유사』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조목의 배경 기록을 유심히 살필 경우 그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또는 돌처랑이라고도 함), 제7 보동랑, 이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할 때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화랑의 무리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해 유람을 그만두려 했다. 이때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성피가 즉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곧 화가 오히려 복이 된 셈이다. 이에 임금이 기뻐하며 화랑들을 금강산으로 보내 놀게 했다.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 第七寶同郎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sup>16)</sup>

여기서 反成福慶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다. 용천사가 노래를

- 
- 15) 이 외교 주도권 장악의 이면에는 귀족연합의 경제적 이익이 개재되어 있다. 이병로·김용일, 「752년 신라사 김태렴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34, 일본어문학회, 2006, 540면에 따르면, 진골 귀족은 자신의 공방에서 만든 물품을 외교 사절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고 있다고 한다.
- 16) 일연,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7, 228면.

부르자 혜성이 사라지고 왜군이 돌아간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전화위복이 되는지는 위 기록만으로 알기 힘들다. 추측한다면 혜성과 왜군이 출현하는 위기 상황이 닥치자, 오히려 이것을 내부 문제를 푸는 고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내부 문제란 전제왕권 대 귀족연합 사이의 갈등을 가리킨다. 화랑이 집단으로 유람에 나선 일은 단순한 산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화랑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는 정치적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귀족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 화랑제도에 귀족의 복속을 위한 왕권의 기획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족연합이 화랑의 풍악행을 사안의 심각함을 무시한 행위로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곧 귀족연합은 혜성과 왜군의 출현을 빌미삼아 화랑의 산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운다.

그러면 진평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선 혜성의 흉조를 길조로 바꾸는 작업을 용천사를 통해 시도한다. 이것은 일종의 민심 안정책이다. 다음 왜군의 도발을 외교적 대응을 통해 해결한다. 동시에 그것을 다시 국내 정치 문제를 푸는 고리로 사용함으로써 전제왕권의 안정을 꾀한다. 곧 귀족연합으로 하여금 외교 경로를 통해 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풀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귀족연합에게 일정 정도의 권력을 넘겨주는 대신 전제왕권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타협책이 된다. 곧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 된다. 反成福慶이란 바로 이 상황을 가리키는 평가다.

607년 왜군의 도발은 608년 문물 전수라는 신라의 선린외교책으로 마무리된다. <혜성가>는 이 과정에서 나온 노래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왜국에 대한 신라의 외교적 승리, 귀족연합과에 대한 전제왕권의 승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귀족연합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외교선린책의 한 주역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귀족연합과 그 상대역을 맡은 왜국의 인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라 중고기 귀족연합의 대표는 상대등이다. 진평왕대 상대등으로는 노리부와 수을부 두 명이 기록되어 있다. 동왕 원년부터 10년(588) 12월까지 노리부가 직을 맡아 보다 졸하자 수을부가 그 뒤를 잇는다.<sup>17)</sup> 수을부가 언제까지 상대등의 자리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약 동왕 29년(607) 무렵까지 수을부가 생존했다면, 그는 연령상 대왜국 외교를 주도한 1차 후보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동왕 2년(580) 병부령에 오른 이찬 김후직은 귀족연합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대등 노리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왕당파적인 성격을 가진다.<sup>18)</sup> 그런 점에서 김후직의 가능성은 반반에 속한다

진평왕 53년(631) 모반을 일으킨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은 607년 무렵은 연령상 청장년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차 후보군에 올릴 수 있다. 사랑궁 사인 검군을 낭도로 거느린 화랑 근랑의 아버지 이찬 대일은 칠숙보다 연령상 조금 아래에 속한 인물로 보인다. 왕실 측근 사인에 의한 검군의 살해 사건은 건복 45년(628)에 일어나는데,<sup>19)</sup> 이로 보아 607년 무렵 대일은 청년기 정도의 연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차 후보군은 정치의 중심에 나서기에 연령이 너무 높고, 2차 후보군은 연령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제왕권과의 일정한 타협을 통해 대왜국 외교를 성사시킨 귀족연합은 아마도 1차와 2차 후보군 사이의 중간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구체적 인물은 신라 쪽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일본 쪽 기록에 의하면, 나말 죽세사와 북질지가 대왜국 외교를 담당할 인물로 나타난다. 그 기록을 보면

- 
- 17) 眞平王 元年 八月 以伊浪努里夫爲上大等 十年 冬十二月 上大等努里夫卒, 伊浪首乙夫爲上大等(김부식, 『삼국사기』, 68면).
- 18) 金后稷 智證王之曾孫 事眞平大王爲伊浪 轉兵部令 大王頗好田獵 后稷諫曰 中略 王不從 又切諫不見聽 中略 大王潸然流涕曰 中略 若終不改 其何顏於幽明之間耶 遂終身不復獵(김부식, 『삼국사기』, 456면).
- 19) 劔君 仇文大舍之子 爲沙梁宮舍人 建福四十四年 丁亥秋八月 隕霜殺諸穀 明年春夏大飢 民賣子而食 中略 劔君笑曰 僕編名於近郎之徒 修行於風月之庭 苟非其義 雖千金之利 不動心焉 時大日伊浪之子爲花郎 號近郎 故云爾(김부식, 『삼국사기』, 481면).

다음과 같다.

추고 18년 7월 신라 사자 사록부 나말 죽세사와 임나 사자 녹부 대사 수지매가 축자에 도착했다.

十八年 秋七月 新羅使人沙喙部 奈末竹世士 與任那使人喙部 大舍 首智買 到于筑紫

추고 19년 8월 신라가 사록부 나말 북질지를, 임나가 습부 대사 친지주지를 보내 같이 조공했다.

十九年 秋八月 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智 周智 共朝貢

추고 24년 7월 신라가 나말 죽세사를 보내 불상을 바쳤다.

廿四年 秋七月 新羅遣奈末竹世士 貢佛像<sup>20)</sup>

나말은 신라 17관등 중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두품이나 6두품이 맡을 수 있는 자리다. 이들은 대외국 외교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지, 귀족연합의 일원은 아니다. 이들은 전제왕권과 귀족연합 사이의 역학 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사신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 실무진의 상대역을 맡은 왜국의 외교 담당자는 누구인가? 진하승과 길사반금이란 인물을 『일본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추고 11년 11월 기해일 황태자가 여러 대부에게 “나에게 존귀한 불상이 하나 있는데 누가 그것을 모시겠는가?”하고 물었다. 이때 진하승이 나와 “신이 그것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곧 불상을 받아 그것으로 봉강사를 조성했다.

十一年 十一月 己亥朔 皇太子謂諸大夫曰 我有尊佛像 誰得是像以恭拜 時秦造河勝進曰 臣拜之 便受佛像 因以造蜂岡寺

추고 5년 11월 계유일 길사반금을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20) 판본태랑 외 교주, 『일본서기』 4, 464 : 465 : 468면.

五年 冬十一月 癸酉朔甲午 遣吉士磐金於新羅

추고 31년 길사반금을 신라에, 길사창하를 임나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임나의 일을 묻게 했다.

卅一年 爰遣吉士磐金於新羅 遣吉士倉下於任那 令問任那之事<sup>21)</sup>

진하승은 백제계 인물 소아마자와 더불어 비조시대 정국을 움직여간 신라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소아마자가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면, 진하승은 경제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파악된다. 진하승은 5세기 무렵 왜국으로 도래한 신라 출신 귀족의 후예로서, 경도 태진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진씨 가문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7세기 초 성덕태자로부터 불상을 받아 봉강사를 조성할 만큼 경제적 부를 쌓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신라와 왜왕실과의 외교를 주선하는데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편 길사반금은 진하승의 막료로서 대신라 외교의 일선에 서서 활약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위 인용에서 나타난 추고 11년(603) 불상과 앞서 인용한 동왕 24년(616) 불상은 모두 경도 광륜사에 있는데, 광륜사는 곧 봉강사를 가리킨다.<sup>22)</sup> 한편 616년 불상은 진평왕이 추고천황의 쾌유를 빌기 위해 보낸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딸 덕만공주의 왕위 계승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진하승이 이 불상마저 광륜사에 안치한 사실은 신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sup>23)</sup>

21) 판본태랑 외 교주, 『일본서기』 4, 458 : 455 : 470면.

22) 603년 불상은 백제에서 보낸 것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백제에서 보낸 것이든 아니면 신라에서 보낸 것이든 진하승이 신라계 인물이라는 정치적 위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23) 이상 진하승과 광륜사 불상에 대한 정보는 홍윤기, 「신라인 진하승과 교토 땅 광륜사」, 『한글+한자문화』 95,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7, 76~79면 ; 「신라인 진하승과 교토 땅 광륜사(2)」, 『한글+한자문화』 96, 72~75면 참조.

603년 불상과 616년 불상 전래 사이인 608년 신라인 도래가 이루어진다. 진하승이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신라 전제왕권과 귀족연합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된다. 귀족연합이 외교 주도권을 확보를 통해 일정 정도의 권력을 획득한다면, 전제왕권은 민심 안정을 통해 왕권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더구나 신라 전제왕권은 왜국과의 외교를 통해 여왕 계승의 가능성마저 타진하는 망외의 소득을 얻는다.

#### IV. 맺음말

『삼국유사』는 역사서다. 의외로 이런 간단한 사실을 잇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뭇 다른 점은 있지만, 『삼국유사』가 역사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실린 사건은 상당 부분 정치적 함의를 띤다. 다만 설화로 윤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읽어내기가 까다로울 뿐이다. <혜성가> 또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 작품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존의 연구사적 관습대로 주술가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술은 신비한 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행위다. <혜성가>는 주술적 설화의 보자기에 싸여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꺼내면 살아 숨쉬는 당대 정치현실의 속살이 드러난다. 더구나 작품 자체에 나타난 용천사의 발화는 주술로 보기도 힘들다. 혹시 동해안 건달바를 주술의 한 요소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작품 안의 한 종교적 상징일 뿐이다. 용천사의 발화는 주술적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정치 현실이나 천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예리한 분석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혜성가> 제1, 2단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제1단은 왜군의 도발이며, 제2단은 혜성의 출현이다. 둘 모두 겉으로는 위기

처럼 보이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할 경우 그것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이미 그 속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군 도발의 목적은 전쟁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실리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국제정세의 이러한 내막을 안다면, 사태는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천문 현상에 대한 해석도 민심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곧 “길쓸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 아뢰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현혹될 것 없다는 것이 <혜성가>의 주장이다.

<혜성가>는 7세기 초 동북아의 국제정세를 반영한 노래다. 돌궐, 수, 고구려 그리고 신라, 왜국, 백제 등이 그 정세를 앞장서 이끈 나라다. 진평왕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편승해 왜국과의 외교 갈등을 오히려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다. 귀족연합과의 타협을 통한 국내 정치 안정, 민심 안정을 통한 왕권 강화, 외교관계를 통한 국가 안정 등이 진평왕이 노린 목표가 된다. 이러한 국내 안정을 바탕으로 진평왕대 전제왕권은 다시금 당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한다. 이렇게 볼 때, <혜성가>는 진평왕대 전제왕권의 업적을 찬양하는 악장적 성격의 문학이 된다.

## ● 참고문헌 ●

### 〈기초 자료〉

- 김부식, 『삼국사기』, 한길사, 2003.  
일연,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7, 228면.  
板本太郎 외 교주, 『일본서기』 4, 암파서점, 2006.  
『隋書』 2: 『二十五史』 5, 상해고적출판사·상해서점, 1986.  
『隋書』 3: 『二十五史』 5, 상해고적출판사·상해서점, 1986.

### 〈참고 문헌〉

- 강길운, 『향가 신해독 연구』, 한국문화사, 2004.  
서영교, 『유천사의 〈혜성가〉 창작 시기와 그 배경』, 『민족문화』27, 민족문화추진회, 2004.  
소창진평, 『鄉歌及び吏讀の研究』, 경성제국대학 국문학회, 1929.  
신형식, 『통일신라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4.  
양주동, 『증정 고가 연구』, 일조각, 1965.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학사, 1997.  
유창균, 『향가 비해』, 형설출판사, 1996.  
이기백, 『고대 한일 관계의 검토』, 『한국고대사론』, 일조각, 1995.  
\_\_\_\_\_,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신라 정치사학회 연구』, 일조각, 1977.  
이병로·김용일, 『752년 신라사 김태렴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34, 일본어문학회, 2006.  
이정숙은 『신라 진평왕대의 왕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홍윤기, 『신라인 진하승과 교토 땅 광릉사(2)』, 『한글+한자문화』96, 전국

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7.

\_\_\_\_\_, 「신라인 진하승과 교토 땅 광릉사」, 『한글+한자문화』95, 전국한자  
교육추진총연합회, 2007.

황병익, 「<혜성가>의 쟁점과 의미 고찰」, 『한국시가연구』17, 한국시가학회,  
2005.

이 논문은 2008년 5월 10일 투고 완료되어

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8년 5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The meaning of “Ode to a Comet”

Shin, Young-myung

The general meaning of “Ode to a Comet”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In old times a godlike general, Gandharva have observed and protected the East Sea.

The moment Japanese soldiers invaded and tried to destroy it, its frontier fortress lit a signal fire.

The moon lightened the road devotedly at the news that three Silla knights came to take a view of the mountain.

Someone informed the star which sweeps the road as an ominous sign.

Oh, now that it has disappeared down the mountain,

Is there anything else but this propitious spirit?

Key words : Ode to a Comet(혜성가), Halley's comet(헬리혜성), the 7th century(7세기), Silla(신라), a despotic monarchy(전제왕권), the confederate aristocracy(귀족연합), King Jinpyong(진평왕), Japanese soldier(왜군), Northeast Asia(동북아)